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늘은 새해 첫날이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평화의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은 만복과 참 평화의 근원이 바로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참된 복과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하느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여인, 성모마리아의 신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모마리아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목동들이 전하는 말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느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순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과 평화는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야말로 참된 복이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야말로 참된 평화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화이기 때문에 이 복과 평화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빛과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세상이 주는 고단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희망한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참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박호철 요한 신부 | 진례본당 주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민수 6,22-27
- 화 답 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제 2 독 서 갈라 4,4-7
- 복 음 루카 2,16-21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이탈리아에 모원을 둔 우리 작은 자매들은 세계 8개국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 사이에서 그들과 삶을 나누는 소명을 살아간다. 한국 본원은 진주에 있고 부산의 달동네들, 고창 나환우들 사이에, 서울의 윤락가에서 삶을 나누고 있다(얼마 전까지 국립마산병원에서 50년간 결핵 환우들과 살았다). 우리는 그분들과의 삶 안에서 더욱 하느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을 경험한다.

유독 기억에 남는 체험 한 가지

서울 영등포 분원 이야기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호화로운 도시의 얼굴 뒤에는 흔히들 말하는 아가씨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길에 세를 얻어 살아가고 있다.

그곳의 아가씨들은 포주와 기동서방들의 엄격한 감시하에 살아간다. 그래서 매일 그들과 얼굴을 마주치지만, 그들과 말을 섞기에는 아주 신중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곳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하면서 아가씨들의 필요성에 응답하며 살아간다. 은밀히 산부인과에 동반하거나, 집밥을 그리워하면 살짝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등의 작은 나눔을 하고 있다.

어느 해 성주간 화요일, 그날도 공부방을 가기 위해 골목을 지나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눈인사를 주고받던 아가씨가 “수녀님, 저 금요일 오후 3시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몰래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다가 번뜩 한 달여 전에 제가 슬쩍 흘린 한마디 “혹시 이 생활을 청산하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한 이야기가 번뜩 떠올라, “알았다.” 말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던지! 행여 이 일이 잘못되면 저도 그분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세계인지라... 함께 살던 동료 수녀님도 긴장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같은 시간 성금요일 오후 3시의 약속, 기도할 수밖에.....

드디어 성금요일 오후 2시 반, 이 위험천만인 이 상황을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온 마음으로 드리고 그분과 약속한 대로 사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택시를 타 기사님께 계획을 말씀드리고 차비는 원하는 대로 드리겠다고 하며 협조를 부탁드렸다. 그 기사님은 긴가민가하면서 약속 장소로 가 주셨으나 그 아가씨가 보이지 않고, 또다시 한 바퀴 돌아 그 장소에 가도 역시 보이지 않자 하는 수없이 택시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니, 혹시 내가 잘못 알아들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포기할 수가 없어 다른 택시를 타서 똑같은 설명을 드리고 그 장소로 갔더니 마침 그분이 서 있었다. 창문을 열고 제가 소리치자 저를 향해 달려오는데 선천적 소아마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 마주나가 함께 택시를 타고 막달레나의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그분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수녀님, 미안해, 약속시간에 손님을 받고 있어서 못 나왔어. 난 수녀님이 안 오실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나는 태어나기를 이런 몸으로 태어나고, 삼촌들 집을 전전하다가 사촌들에게 당하고.....”

그렇게 울음을 토해내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짓고... 그렇게 막달레나의 집에 도착하여 기사님께 옷돈을 얹어 차비를 드리려 하니 안 받겠다고 하며, 당신도 신자라고 한다. 그러면서, 수녀님이 하시는 일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을 불러 달라고 명함까지 주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좋으신 하느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감탄하며 떠나는 기사님 얼굴에서 예수님의 미소를 보았다. 그리하여 아가씨는 막달레나의 집에서 몸도 마음도 회복하고, 세례도 받고 잘 살고 있다.

다음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와 공부방으로 가기 위해 신호등 앞에 섰는데 어떤 다른 아가씨가 제게 슬쩍 다가와 “어제 △△가 없어졌는데 그걸 본 사람이나 어디 갔는지 알려주면 3백만 원을 준다고 하네, 수녀.” 내심 놀라면서도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고 때마침 바뀐 신호등 덕분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부활절을 맞았고, 이 사건은 그 아가씨에게, 또 우리에게 작고 가난한 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피부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현존하고 계신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만 탈렌트의 용서

미국 개척 시대의 어느 날, 한 인디언(Indian)이 가까운 백인의 집을 찾아가 먹을 것을 간청했다. 주인은 “개 같은 인디언 놈아,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내쫓았다. 며칠 후, 그 백인은 사냥하다가 길을 잃어 불빛을 따라 찾아간 곳이 어느 인디언 집이었다. 그 인디언은 백인 사냥꾼에게 음식을 주며 하룻밤 묵어가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를 배웅하면서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으로부터 개 같은 인디언이라고 욕먹으며 쫓겨났던 자입니다.”라고 했다. 백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부끄러워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다고 했다.

예수님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며, 일곱 번까지 해주어야 하는냐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았다. 거기에 예수님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태 18,23-35의 ‘매정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만 탈렌트(talent)를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끌려왔다. 임금은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제발 갚을 때까지 참아달라는 종의 딱한 사정을 들은 주인은 그를 가엾게 여겨 부채도 탕감하고 놓아주었다. 그런데 그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테나리온(denarius)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멍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다. 그의 동료는 없드려서 갚을 테니 좀 참아달라고 사정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 그를 불러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며, 그 종을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을 다 갚게 하였다.

여기서 만 탈렌트가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알아보자.

한 탈렌트는 6,000테나리온이었으니, 만 탈렌트는 6천만 테나리온이었다. 그 당시 정상적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테나리온이었으므로, 만 탈렌트는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6만 4천 3백 8십 3일 동안 일을 해 모아야 하는 엄청난 돈이었다. 그러므로 만 탈렌트의 빚은 주인의 자비가 없었다면 도저히 갚을 수 없었다.

이 비유는 마태 6,9-15 ‘주님의 기도’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다. 이 내용의 참뜻은 이웃을 용서하는 자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집회 28,1-4에서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고, 자비를 품지 않고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용서는 미국 개척 시대의 인디언과 만 탈렌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처럼, 가엾게 여기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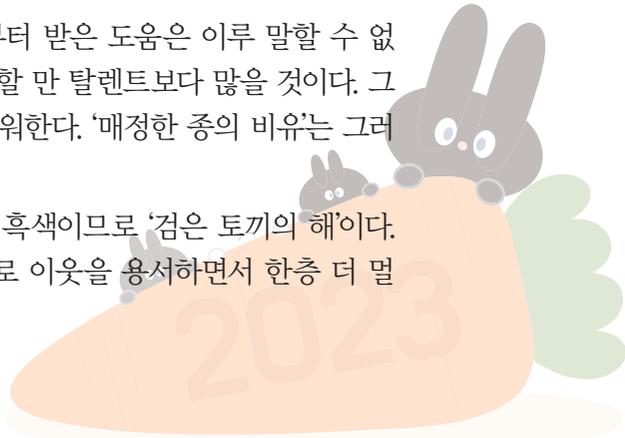
하느님과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배우자와 이웃들로부터 받은 도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 액수는 16만 년 이상 동안 벌어야 할 만 탈렌트보다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100테나리온도 안 되는 이웃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어려워한다. ‘매정한 종의 비유’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육십 간의의 40번째 계묘년(癸卯年)인 2023년 새해가 밝았다. 계(癸)는 흑색이므로 ‘검은 토끼의 해’이다. 그 뜻은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뛰한다는 의미이다. ‘내 탓이오.’ 정신으로 이웃을 용서하면서 한층 더 멀리, 더 높게 뛰어오르는 삶을 살아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 최봉원 신부님의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교구 40주년 기념 특집으로 '마산주보'에 게재되었던 마산교구 전사(前史)를 수정하여 '가톨릭마산(교구보)' 2023년 1월 1일 자부터 재수록 합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1

조선의 천주교는 신앙의 대상이 아닌 학문으로 먼저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서학(西學)을 통해 천주교 서적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학은 중국에서 활약하던 예수회 신부들이 만든 용어다. 그들은 중국 선교를 위해 서구사상과 과학을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과감하게 천주교 이론을 중국 고전에 접목시켰다.

이러한 책들은 지식인들에게 인기 있었고 유행처럼 읽혀졌다. 그리고 중국을 오가던 사신을 통해 조선과 일본에도 전해졌다. 17세기 초부터 시작된 이러한 서학 열풍에 주도적 역할을 한 책은 천주실의(天主實義)였다.

이 서적은 예수회 소속 중국선교사 마태오 리치(Matteo Ricci, 利馬竇 리마두) 신부의 대표작이다.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인 학자와 서양인 학자가 서로 질문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중국인 학자는 전통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 도교를 논하고 서양인 학자는 중국 고전을 인용해 기독교 이론을 해설하고 있다.

천주실의에 대한 비판은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처음 나온다. 그는 유교적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 자세를 취한다. 학자들 사이에 유행되고 있는 것이 불안했던 것이다. 서학을 통해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학을 신앙의 대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기호(畿湖)지방 학자들이다. 이들은 1770년대 말부터 경기도 천진암(天真庵) 인근에서 강학(講學)을 열며 학문연구를 하다 신앙을 깨닫게 된다. 강학이란 공동 주제를 정한 뒤 질문과 답변을 통해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 인물은 권철신, 권일신, 이가환, 이벽, 이승훈, 정약중, 정약용이었다.

강학과 한 사람인 이승훈은 중국 사신의 일행으로 북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회 그라몽(Grammont, 梁棟材 량동재) 신부를 만나 1784년 세례성사를 받고 귀국한다. 따라서 이 해를 기점으로 1984년 조선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이후 조선 천주교는 숱한 박해를 받게 된다. 사대(四大) 박해로 불리는 신유박해(1801), 기해박해(1839), 병오박해(1846), 병인박해(1866)와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신해박해(1791), 을묘박해(1795), 을해박해(1815), 정해박해(1827), 경신박해(1860) 등이다.

서울의 박해는 신자들을 지방으로 내몰았고 도시의 박해는 교우들을 산골짜기와 해안가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경기지역 천주교는 충청 전라 지역과 경상도 북부지역으로 내려오게 된다. 결국 신자들의 이동은 박해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숨어들면서 이루어졌고 마지막 귀착지가 경상도 쪽이었다.

마산교구가 속한 경상도 서부지역으로 신자들이 넘어오기 시작한 것은 1827년 정해박해 이후로 보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시작된 정해박해는 피난 교우들을 지리산과 백운산 덕유산 쪽으로 몰아넣었다. 살길을 찾다 보니 그들은 서부경남 깊숙이 들어왔고 남쪽 바닷가 해안지역까지 내려왔던 것이다.

마산교구에 처음으로 교우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 무렵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1860년대 초반이다. 병인박해 이전에 마산교구 내에도 교우촌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기록된 마산교구 교우촌은 다음과 같다. 거제도, 남해도, 통영, 고성황리(黃里), 사천의 배춘(培春), 진주소촌(文山), 칠원, 의령의 신반(新反)이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2

박해는 신자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의 박해는 지방 교회 탄생의 원인이 된다. 피난 교우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관의 손길이 없는 곳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으로 신자들이 퍼져나갔다.

한편 박해로 인해 귀양 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지만 유배지에서의 모범적 생활로 포교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다. 또 몇몇 신자들은 귀양 가는 이들을 뒤따라가 숨어 지냈는데 이들의 노력으로 유배지에서도 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피난 교우들의 삶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더러는 관참은 환경을 만나 주저앉기도 했지만 대부분 떠돌아다녀야 했다. 신분 노출이 두려웠던 것이다. 약간의 살림살이를 모으면 지방 사람들의 고발을 걱정해야 했고 관의 추적이 의심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다.

그들이 떠날 때는 언제나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유는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왕 떠돌아다닐 바에야 따뜻한 곳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대부분 강을 따라 내려왔다. 강가에는 노는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경남 지역은 피난 교우들의 마지막 귀착지가 되었다.

경상도를 관통하는 강은 낙동강이다. 강원도에서 발원하지만 안동을 거쳐 구미와 왜관을 돌아 대구의 금호강을 흡수한 뒤 경남 창녕 땅으로 흘러든다. 피난 교우들의 흐름도 이와 비슷하다. 경북의 오래된 공소들이 왜관지역에 몰려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대구교구 두 번째 본당인 가실본당은 낙동강 교우촌들이 모여 만들어진 본당이다(1894년 설립).

마산교구에도 낙동강 유역엔 오래된 교우촌이 있었다. 그중에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곳도 있다. 함안과 진영의 유서 깊은 공소들이다. 기록엔 등장하지만 지금은 없어진 교우촌도 있다. 1890년대 이후 급격히 사라졌다. 이 시기는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 대거 들어올 때다. 당연히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시작되는데 이에 따른 변화가 큰 원인이었다.

창녕의 모래 늪, 시림, 마천, 구개, 환곡 교우촌. 의령의 덕천, 성당, 우곡 교우촌. 함안의 토미, 탑실, 산하치, 울량 교우촌. 밀양의 초동, 백산 교우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낙동강 근처의 수산, 명례, 생림, 양산의 교우촌들은 확고하게 남아 훗날 본당의 초석이 되었다.

교우촌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리델(Ridel, 이복명) 신부가 남긴 기록이다. 1861년 조선에 입국한 그는 전국을 돌며 교우촌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다. 원래 이 지도는 김대건 신부가 1845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 신부의 초본(初本)을 바탕으로 리델 신부가 완성한 셈이다. 이 지도는 1866년 병인박해 이전에 있었던 교우촌(공소)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대구본당 100년 史 127면, 대구교구 발행 '빛' 1984년 4월 호 71면 참조).

이 지도에 의하면 1860년경 전국엔 153개 교우촌이 있었고 마산교구에 속하는 교우촌은 8개였다. 거제, 남해, 통영, 고성, 사천, 문산, 칠원, 의령이다. 따라서 이 교우촌이 기록상 가장 오래된 마산 교구 교우촌인 셈이다.

칠원과 의령은 낙동강 인근에 있던 교우촌이다. 원본에는 칠원, 의령이 아니라 교우촌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우촌 이름만으론 어디 땅인지 알 수 없기에 교우촌이 속한 군(郡)을 표시했던 것이다. 지금은 칠원이 함안군에 속하지만 당시엔 칠원이 단독 군이었고 마산 일부도 칠원군에 속해 있었다. 칠원으로 표시된 교우촌은 죽청공소(現 칠북면 운서리). 의령은 덕천공소(現 유곡면 덕천리)로 추정한다.

교구장 서리 동정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2일(월) 09:00
장소: 성혈 영성의 집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3일(화) 14:00
장소: 문성대학교 체육관

교구/본당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2일(월) 09:00/ 장소: 성혈 영성의 집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의

일시: 1월 3일(화) 17: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자비의사도 1일 피정

일시: 1월 5일(목) 14:00~17:00

장소: 교구청

강의 및 미사: 김규한 요셉 신부(그리스도 수도회)

문의: 최혜숙(데보라) 010-4262-5520

기 타

가톨릭공동체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취업률 76.5% 총복권 최고수준
-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등록금 전액 감면
- 간호학과 등록금 100만 원 감면
-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원서접수: 12월 29일(목)~23년 1월 2일(월)
문의: 043-270-0100~0102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월 8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꽃동네 수도자·가족과 함께하는 기도피정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

일시: 1월 14일(토) 14:00~15일(주일) 15:0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만 35세 미만 젊은이

참가비: 4만 원(1인실-1박 2일)

▶사전 예약 접수 요망(피정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현장접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형제회 010-4468-5628/
자매회 010-4830-2820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2월 25일(토)~26일(주일)

3월 4일(토)~5일(주일)

3박 4일- 1월 6일(금)~9일(월)

2월 4일(토)~7일(화)

8박 9일- 1월 25일(수)~2월 2일(목)-신학생

2월 10일(금)~18일(토)

40일: 4월 11일(화)~5월 20일(토)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성모솔솔마을 환자를 위한 치유 소피정

치유 소피정: 1월 21일(토)-매달 3째주 토

내용: 11:00 미사(점심, 특강)-예약접수 중

문의: 010-3209-3955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에서 갖는

평화로운 '침'과 재충전의 순례

일시: 1월 13일~15일/ 1월 28일~30일/ 2월 3일

~5일/ 2월 9일~11일/ 2월 13일~15일/ 2월

18일~20일/ 2월 26일~28일/ 3월 4일~6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제주자연피정)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눈꽃산행 1월 27일~29일/ 2월 4일~6일/ 2월

12일~14일/ 2월 18일~21일(3박 4일)/

2월 24일~26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2023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700/ 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예수회센터 불학기 강좌(3월 개강)

내용: ·사복음서의 특징과 영성적 가치-

임숙희 박사

·성경대학: 공관복음-송봉모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여호-2열왕-주원준 박사

·꿈을 통한 영적 치유-홍기령 교수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내용: ·영성과 철학상담-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실시간 줌(ZOOM) 강좌: 매주 화요일 19:00~21:00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2023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월 10일(금)까지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우편접수 가능

재속 맨발 가르멜회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1월~3월

장소: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회관

대상: 만 55세 이하, 세례 받은지 3년 경과, 견진성사를 받은자,

과거 냉담 신자인 경우 성사 생활 3년 이상인자

문의: 010-7275-4357

교구청 직원 모집

청소년국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접수: 1월 11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특이사항: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및 레크에 감각이

있는 사람 우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

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6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좌동본당 제1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주학(요한다마세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배장수(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성선거(골롬바)

총무: 황정욱(시몬)

기획관리분과위원장: 황두환(치릴로)

복음화분과위원장: 전수진(엘리사벳)

전례분과위원장: 황인성(골디아노)

가정사목분과위원장: 김도형(비토르)

구역분과위원장: 전귀옥(글라리)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영애(테레사)

청소년분과위원장: 문우기(제리노)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오형석(루치오)

교육분과위원장: 박봉열(베드로)

홍보분과위원장: 손정표(바오로)

늘품직업재활센터 '늘품은견과' 설날 선물 사전 예약 판매

늘품직업재활센터는 창원시에서 위탁받아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사전 예약 주문 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늘품은견과 플러스: 기본세트 1박스+답례품 2통

(34,000원~30,000원)/ ▶ 늘품은견과 선물형: 기본세트

1박스+크리스탈보자기 포장(26,000원~23,000원)/ ▶ 늘품

은견과 실속형: 기본세트 1박스(22,000원~20,000원)

사전주문기간: 1월 18일(수)까지

문의: 055-247-5190, 010-2568-5190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1월 2일(월) 19:00	중앙동성당	믿음과 순명	이대호 루카(삼성산 찬미 봉사단)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072-5612
청 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목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례자 요한)
010.5053.5393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집,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마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피터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2023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 속에 우리 교구 부제 3명이 사제품을, 1명의 신학생이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 일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월 3일(화) 14:00
-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 **주례:**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사제품

부제품



이창범 라자로
첫미사 구암동성당
1월 4일(수) 19:30



김진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첫미사 문산성당
1월 6일(금) 19:00



장신영 요한 마리아 비안네
첫미사 옥봉동성당
1월 5일(목) 19:30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월남동본당

여지와 여백으로의 초대장

영혼의 뜨락

김유철 스테파노 시인 / 가톨릭문인회

새해! 첫날! 하느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평화를 염원하고 덕담과 기쁜 인사를 나누는 날입니다. 또한 2023년 365일에 자신의 숨결 따라 새겨질 발자국을 미리 '곰곰이'(루카 1,29) 생각해 보는 한 해 중 가장 소중하며 진실 앞에 마주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외지를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낯선 마을을 갔을 때 성당을 만나면 가급적 일부러라도 들어가곤 합니다. 서울에 갈 때는 명동성당을 거의 빠뜨리지 않습니다. 서울이란 곳, 명동이란 곳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길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행사도 1년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대개 비어있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좀 혼란한 도시 안에서 비어있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내심 떠올리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 도시를 생기고 발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이렇게 비어있는 여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빠, 바빠”를 일과처럼 여기는 삶일수록 여지가 있어야 하고, 여백이 있어야만 하느님 앞에서 더 생기발랄한 신앙인이 될 것임을 새삼 되새깁니다. 물론 그 여지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고 여기며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에서 하신 말씀을 찾아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사도 22,22-23)

바오로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하느님’이라고 적어놓아야 할 제단 앞에 사람들은 ‘돈’, ‘명예’, ‘1등’이라는 명패를 붙여 놓고 싶어 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오늘날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삶은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여백이 있는 삶,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드는 여지가 더욱 맑고 향기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여깁니다.

새해를 앞두고 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깊이와 시간이 평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공간의 힘이었겠지요. 미국 도시계획학자 헤이든은 공간 즉 장소의 힘을 “숨겨진 힘이며, 기억을 키우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기억하는 힘은 공간의 여지와 마음의 여백에서 피어남을 재삼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내 자신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늘 주님이 먼저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루카 22,32)는 말씀처럼 주님의 기도 속에서 평화의 발걸음을 새해에도 걸어보려 합니다. 혼자 그리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길에서 두 손 모음.

“신학이 뭐미꺼?”

변종원 요셉 신부

흔히 신학이라고 하면 전문학자나 사목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학은 딱딱하고 지겨운 학문적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신학은 하느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해와 공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어쭙잡게 아는 것이지만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학이 뭐미꺼?”

우리 신자들에게 “신학이 뭘까예?”라고 물어보면, 공통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 눈을 피하거나, 다른 하나는 옆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분들은 ‘신앙’, ‘믿음’이나 ‘성경’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면 생소하시는지 입을 꼭 닫아 버립니다.

‘신학’의 한자를 보면 ‘하느님’(神)과 ‘배움’(學)의 합성어로, ‘하느님을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학의 영어(theology) 단어는 어원적으로 ‘신(하느님)’을 뜻하는 희랍어(希臘語, 그리스어) 테오스(theos)와 ‘이야기, 전술, 담론, 설명’등을 뜻하는 로고스(Logos)의 합성어로, ‘신(하느님)의 이야기, 말씀’ 또는 ‘신(하느님)에 대한 전술, 담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하느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묻고 깨닫는 일련의 과정’이 신학이기에, 한마디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로고스(Logos)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감안하여 좀 더 생각해 보면, 깊이 성찰(省察)해 보고 고민하며, 단순히 나 혼자만이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느끼는 것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느끼고 말하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묻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더 이상 전문학자나 신학생, 신학자나 수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갖고 하느님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사람, 드러내지 않지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은 뭐 하는 것인가?

신학은 내가 바로 여기 숨 쉬고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곧 ‘지금, 여기서’ 내가 믿고 사는 신앙의 내용들을 나의 말, 나의 물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왜 믿어야 하는지’, ‘또 그 내용들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내 삶에서 살아있는 진리로 만들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신학은 그래서 한마디로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내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물음을 던지는 것이고, 곰곰이 되새기며 고민하면서, 동시에 내 이웃들의 생각을 듣고, 나의 삶에서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에만 간직하지 않고 스스로가 믿는 진리를 반성하며 비판하는 가운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성숙하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도전에 맞서 정통 신앙을 지켜왔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신학은 그리스도교의 정통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고 전승(傳承)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론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인류에게 내어주신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적당히 내가 원하는 정도로만 하느님을 알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신학은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학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